

## News

### KB금융, 첫 분기배당 나선다... '당국 압박에 우리·하나금융' '고심'

시사저널이코노미

KB금융, 지주 설립 이후 첫 분기배당 실시하기로 내부 방침 결정한 가운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타 금융사들의 고민 깊어져... 시장은 분기배당 요구, 당국은 대손충당금 권고 업계에서는 금융지주들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움직임 가속화 예상... 하나금융지주는 중간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 고금리 적금·신패일러 대출... 핀테크와 손잡는 지방은행

조선비즈

지방금융지주 계열 은행들, 핀테크 기업과 협력하고 디지털 전환 꾀해... 가계대출 수요 감소로 성장 정체 예상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뒤쫓아와 돌파구 마련하는 모습 전북은행, 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 최고 연6%의 금리 제공하는 '네이버페이×JB적금' 출시... 2030세대 이용자 유입 기회로 활용

### 손태승과 손발 맞춘 외국인...우리금융지주 주가 '새시대'

에너지경제

우리금융지주, 실적 발표 앞두고 지주사 새사장 이후 증가 기준 사상 최고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년만에 고점 탈환 전일 대비 1.25% 오른 16,200원에 마감... 외국인들, 올해 들어 5,800억원 어치 사들이며 지분율을 35.57%로 끌어올려... 동사가 타 금융지주와 달리 은행 의존도 높기 때문

### ETF 몸집 불리는 은행...2400억 뭉치든 유입

서울경제

시중은행들, ETF 수탁매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후발 주자인 기업은행, 지방은행 등도 속속 ETF 상품 판매를 위한 준비 갖추는 모습 18일 기준 4개 주요 시중은행 출시한 퇴직연금 ETF 가입 계좌 수는 총 41,666좌로 집계... 가입자가 ETF 매매 지시하면 은행이 신탁 매매하는 형태로 시스템 구축해와...

### 4월 주요 보험사 주담대 금리, 3월보다 상단 0.12%p 올라

세계일보

6개 회사(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현대해상)는 이달 변동금리·분할상환 조건의 아파트담보대출 운영금리를 3.8~5.78%로 공시 한 달 전보다 하단 0.08%p, 상단 0.12%p 각각 올라... 3월 취급한 주담대 평균 금리는 3.85~4.31%에 분포

### KDB생명 매각 네 번째 고배... 힘 빠지는 산업은행

e대한경제

KDB칸서스밸류PEF는 지난 20일자로 JC파트너스와 체결한 KDB생명 SPA 해제 통보... JC파트너스는 올해 1월 31일까지 대주주 변경 승인 받지 못해... 또한 계약 체결 당시부터 매각액이 2,000억원에 불과해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 나와... 산업은행은 재매각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투자 자금 회수는 어려워보여...

### 작년 파생결합증권 잔액 84조7천억원...2014년 이후 최저

연합뉴스

작년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이 2014년 이후 최저치 기록... 금감원에 따르면 발행 잔액은 전년 대비 4조 3천억원 감소한 84조 7천억원으로 집계 글로벌 증시 하락 등 영향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 기초자산별로는 S&P500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 코스피200지수 등 순으로 ELS 발행액이 많아...

### 퇴직연금 300조 시대, 키움증권도 퇴직연금 카드 만지작?

EBN

키움증권, 자기자본 2조원 넘는 10개 증권사 가운데 메리츠증권과 함께 퇴직연금 상품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일부 개인투자자들, 불만 토로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 중... 개인형IRP효과가 크기 때문...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이나 당장 운영할지 여부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사측은 신중한 입장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